MAYA TOUR 마야투어
깨침의 순례! ☎ 02)722-9001
신심의 등불로 불적지를 밝히는 성지순례!

佛敎新聞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6월 29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5월21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24호 토

격론 펼치며 '쇄신입법' 마무리 총력

중앙종회 194회 임시회 … 26일 속개

총무원장 스님 "소임에 대한 마음 비웠다 쇄신결사 계속 추진해 달라" 입장 밝혀

총림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19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통과됐으나 주지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는 개정안은 위헌 의견이 제기돼 삭제됐다.

특히 총림 주지 추천 건은 산중의 공의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방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영배스님 등 일부 스님들이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임회의 동의를 얻는 구절만 삭제돼, 총림법 개정의미가 반감됐다.

반면 총림 주지자격은 본사주지와 동일하고, 임기 4년으로 규정한 내용과 임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방장이 총림 주지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함께 개정된 조항을 보면, 방장은 임기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각종 법문과 화두간택, 점검 등 납자들을 제접해 수행풍토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다.

임회 구성도 확대해 산중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선원장, 율주, 학장 염불원장, 삼장원장, 종무원법 6조에 해당하지 않는 총림 주지를 역임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전직 주지와 당해 교구 종회의원, 대종사,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종무원(2년 이상 재직 중) 종헌종법 위원회 위원장(2년 이상 재직중)과 중앙교역직 종무원 및 중앙종회의원 10년 이상 역임한 경우 1회에 한해 임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선출직 의원은 방장이 추천한 종사급 이상의 3인의 승려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의 승려 10인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임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6월25일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종헌개정안은 종회 재적인원 8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54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해, 비구니스님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비구 스님들의 반발로 좌절되면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10명이 일제히 의석을 비우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6월25일 오후7시 현재 휴회된 임시종회는 이튿날인 26일 속개된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제정 추진되는 청소년출가 단기출가 특별법은 10대 소년 출가자와 20대 청년출가에 대한 혜택부여와 함께 단기출가자를 위한 출가수행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에는 전국 교구본사별로 1명씩 원로의원을 선출하자고, 원로회의 의원은 말사주지 겸직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의 건 등 인사추천도 다뤄진다. 이번 종회에는 또 한글의례문 〈반야심경〉 수정동의의 건과 한글의례문 〈천수경〉 동의의 건도 올라와 사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한글의례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며 "오늘로서 128일 남은 33대 집행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관심과 조언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차호 상보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이 지난 25일 열린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며 "128일 남은 33대 집행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관심과 조언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여름 휴가 고민이라면 템플스테이 신청하세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
체험·휴식·수행형…선택폭 넓어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벌써부터 이번 휴가는 어디로 떠날지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다양한 휴가를 계획하지만 막상 교통 정체와 넘쳐나는 피서객, 바가지 상흔 등으로 휴가지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어디로 떠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마련한 여름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것은 어떨까.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현대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과 8월,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은 일제히 체험형, 휴식형, 수행형 등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은 물론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대거 마련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을 닦고 싶다면 참선, 명상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행형 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서울 조계사의 '여름밤, 구미호를 쫓다', 화성 용주사의 '하안거 참선 템플스테이', 서울 길상사의 '여름 선수련회', 성주 자비선사의 '자비선 명상 체험' 등은 참 나를 찾는 진정한 휴가가 될 것이다. 학업과 취업, 연애 문제 등을 고민하는 2030세대들에게는 혜민스님과 함께 떠나는 템플스테이가 해답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심신을 단련시키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다. 충, 효, 예 등 전통 가치를 배우며 불교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 관련기사 5면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종회 최대 종책모임 구성된다

화엄·무량회·무소속 참여 '불교광장' 7월11일 창립 총무원장 선거 영향 '촉각'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화엄회, 무량회, 무소속 의원 스님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종책모임 '불교광장'을 창립한다. 불교광장은 지난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모임을 갖고 오는 7월11일 오후2시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불교광장은 비구 종회의원 71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중앙종회 내 최대 종책모임이 됐다. 공동대표는 화엄회 성직스님, 무량회 법보스님, 무소속 지홍스님 등 3명이다. 사무처장은 덕문스님이 맡으며, 각 모임을 대표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다.

불교광장은 다가오는 총무원장 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러 종단화합과 안정, 혼란 없는 선거풍토 조성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불교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종책을 연구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지닌 선거인단 321명 중에서 영향력이 특히 강한 중앙종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불교광장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광장 측은 오는 10월10일 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지난 33대처럼 형식은 경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추대로 진행돼 과열, 혼탁을 방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광장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반목과 갈등, 분규의 씨앗이 돼왔던 선거가 제33대부터 실질적인 추대로 진행되면서 그 폐해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이번 선거도 그처럼 진행한다면 종도로부터 신뢰 받는 종단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과반수 이상의 종회의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종책모임을 만드는 것은 합의추대를 통한 종단 안정기여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후보 추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후보 선정 보다는 승가다운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불교 발전, 대승보살도 실천 등 지금껏 종단 집행부가 추진 중인 종책을 지속해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선정은 그 다음 과제라는 것이 불교광장을 주도하는 스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불교광장이 추대하는 후보가 부상하는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추대를 통한 새로운 승가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화합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구현이라는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종책모임을 만든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단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창립 소식을 알리는 온라인 기사에는 긍정적 반응보다 비판적 댓글이 더 많다. 이에대해 불교광장에 참여하는 한 종회의원 스님은 "선거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좋은 총무원장을 모시자는 뜻에서 마련된 모임"이라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조용하고 법다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세속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세 규합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기독선교회, 과도 선교활동 우려"

종평위, 미래부장관에 위반 사실 조사 요청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한 기독선교회의 과도 선교활동을 우려하며 미래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평위는 특히 "이 사업계획안이 대변인실을 통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진위 여부를 떠나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종평위는 미래부가 이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배경 조사 및 공식 해명',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사실 조사 및 조치', '해당 부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7월1일까지 공문회신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다종교 사회에서 과도한 선교나 전도활동은 종교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화합을 깨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는 법으로도 규정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독자기획사업부 (02) 730-4488
▮문 자 전 용 (010-4157-4406)

MBC '아빠 어디가' 템플스테이 가다 12면

Since 1963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The 4th KBUF Young Buddhist Camp

Let's go! 빛나는 청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한명 한명이 부처님인 대학생 불자들의 축제,
KBUF 대학생 여름캠프,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청춘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빛내며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 일 시 : 2557(2013)년 8월 17일(토) ~ 20일(화), 3박 4일간
- 장 소 : 서울, 동국대 일대
- 대 상 : 빛나는 청춘과 열정을 가진 청년 대학생
- 참가비 : 10만원(13학번 새내기 20% 할인, 7월 12일(금)까지 환불가능)
  농협 053-01-252868, 국민 023-01-0565993(예금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참가신청 : QR코드 또는 www.kbuf.org 문의 : 02-732-0239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진리의 벗! 진리의 얼! 진리의 빛!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대불련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557(2013)년 8월 17일(토) 오후 18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울)

● 50년의 의미와 감동을 함께 나눌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 국민 023537-04-003350
  예금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50주년기념사업)

▮KBUF 후원안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은 대학생 불자들의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가치를 가슴에 바로 새기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법등法燈이 되겠습니다.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52868, 국민 023-01-0565993
(예금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02호 (우:110-170)
TEL 02)732-0239, 739-0913 FAX 02)732-0240
E-mail. ilovekbuf@hanmail.net
www.kbuf.org / www.town.cyworld.com/yes